

로보 어드바이저 Robo-advisor

- 로봇을 뜻하는 '로보(Robo)' + 자문 전문가인 '어드바이저(Advisor)'

로보 어드바이저의 핵심

- 중위험, 중수익 추구 (AI 트렌드 + 저금리 시대)
- 대박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, 위험 헷지 상품을 잘 찾는데 초점
- 자산관리 서비스 대중화
- ETF 중점 투자 (비용절감 위해), 수수료 년 0.5% 수준

Why Robo-advisor

- 개인 맞춤형 서비스
- 저렴한 수수료
- 절세효과
- 객관적 평가

종류

Fully-Automated Platform

- 알고리즘 기반 소프트웨어가 자산배분 및 리밸런싱 거래 수행

Self-Excuted Trade

- 알고리즘 기반 자산배분 및 리밸런싱 제안(거래는 고객이 수행)

Advisor-Executed Trades

- 소프트웨어로 산출된 자산배분 및 리밸런싱을 인간 자문가가 검증 또는 거래

미국

- Fully-Automated 사례: 배터먼트(Batterment), 웰스프론트(Wealthfront), 퓨처어드바이저(Future Advisor)

국내

- 쿼터백랩(대우증권 협력), 에임(AIM), 디셈버앤컴패니

참조

<http://goo.gl/dsOLqI> (<http://goo.gl/dsOLqI>) 금융계 '알파고' 로보 어드바이저, 진화한 프로그램 매매

- 기존 프로그램 매매가 정교화된 형태, 프로그램 매매는 10개 정도의 조건식으로 투자 타이밍을 잡지만 로보 어드바이저는 조건식을 1천개에서 최대 1만개
- 프로그램 매매가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것에 따라 매수·매도를 반복하는 반면에 로보 어드바이저는 환율, 금리, 유가, 원자재 가격, 정부 정책 등 한층 다양한 데이터로 조건식을 만들어 ETF(상장지수펀드)나 주식 등을 매매
- 원래 미국에서 ETF 자동 매매를 위해 도입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취급 자산이 주식 등으로 확대

<http://goo.gl/q73gTH> (<http://goo.gl/q73gTH>) "시장과 겨루는 금융로봇... 대박상품 꼭 찍어주지는 않아"

- “그렇다고 컴퓨터를 그대로 놔두면 로봇이 알아서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. 전문가들이 새로운 데이터와 전략을 채워 줘야 합니다.”
(김승중 쿼터백테크놀로지스 대표)

<http://goo.gl/4HVNPG> (<http://goo.gl/4HVNPG>) (재테크스토리)사이보그 재테크 시대 여는 '로보어드바이저'

<https://goo.gl/4E5Bgl> (<https://goo.gl/4E5Bgl>) (PDF) 로보 어드바이저의 부상과 자산관리 서비스의 변화